

남한의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갖는 통일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Q방법론을 이용한 북한자유화방송론과 남북교류협력방송론의 차이 규명*

조수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 연구는 남한의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심층적 인식 분석에 유용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P표본은 남한의 대북방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계에서 연구하는 집단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진술문은 통일인식, 대북방송 일반, 민간 대북방송, 남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60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1단계로 전통적 방식의 Q 분석 결과를 통해 2개의 인식 유형, 즉 '유형 1: 북한자유화방송'과 '유형 2: 남북교류협력방송'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는 심층적인 추가 분석을 위해 긍정의 진술문과 부정의 진술문이 갖는 내용적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 결과, 긍정의 경향성은 '통일방송역할론'으로, 부정의 경향성에는 '민간방송규제론'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추가 분석해 보면 기존의 유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각각 '북한자유화방송'과 '남북교류협력방송'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부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민간대북방송보완', '민간대북방송비판'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그러나 유형 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북방송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 보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현재 설립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민간 대북방송이 문제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를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방송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북방송 제작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KEYWORDS 민간 대북방송, 통일방송, 전문가, Q-방법론, 인식

* 이 연구에서 말하는 대북방송 전문가는 대북방송 제작자와 민간 대북방송 대표, 그리고 탈북자 진행자, 통일방송을 연구하는 연구자 등을 포함하는 '대북방송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 febcjs@hanmail.net

*** chlee@kookmin.ac.kr, 교신저자

1. 서론

북한의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 위기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 수는 2만 8천 명이 넘었다¹⁾.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라디오 매체를 통해 남한의 대북방송을 접하고 탈북 동기가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2012)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²⁾에서 19.8%가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민간 대북라디오방송 10주년 기념 세미나(2015)에서는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이 라디오 청취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 집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자료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전체 북한 주민의 남한 방송의 수용을 위한 자료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한의 대북방송은 북한 사회를 이탈한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북한사회는 언론 정보 매체를 당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철저하게 내용을 검열³⁾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남한 관련 뉴스를 일반 주민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 라디오는 쉽게 감청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와 처벌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남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된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 중심의 대북방송 담당자들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을 심어줌으로 북한 내부를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사회적 지원을 얻고자 한다(김승철, 2006).

대북방송은 KBS가 1948년부터, 그리고 종교 방송인 극동방송이 1956년부터 라디오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 현황 자료 2015년 12월 현재 잠정 집계 28,795명. 탈북자들은 분단 체제하에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일차적 사회화를 받았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재사회화를 거치게 되는 특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이 남한의 사회적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실험적인 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집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2)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2년, 한국 거주 탈북자 1,486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실시하고 청취 비율을 19.8%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언론재단(2005, 한국 거주 탈북자 103명 대상), 인터미디어(2010, 중국 거주 탈북자 291명 대상), 국방연구원(2011, 한국 거주 탈북자 71명 대상)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외부 라디오 청취율은 각각 18.2%, 22.8%, 15.5%로 발표된 바 있다.

3) 북한 형법 제6장 195조는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퇴폐적이고 추잡한 내용을 다룬 음악, 그림, 사진, 녹화물과 CD-ROM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들여왔거나 유포한 죄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죄목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4) 라디오는 식량위기로 형성되기 시작한 장마당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체이며(이주철, 2008) 최근 보도에서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소형 라디오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노컷뉴스, 2014. 2. 28).

방송을 통해 지속해 왔다. 이들 방송은 냉전 체제하에서 대 사회주의 심리전 방송을 지속하였고,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자유주의를 지키는 선전 매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별히 라디오는 국경을 초월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외국에 대한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이정춘·전석호, 1991; 이성민·강명구, 2007 재인용). 냉전 시기 남북한은 라디오를 통한 전쟁을 지속해 왔고,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의 냉전적 스테레오타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방송은 냉전 시기 체제 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 도구이며, 청취자들에게는 전후 피폐한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위로의 수단이기도 했다(이성민·강명구, 2007). 정치적으로 남북한 간 대결 구도, 대화가 반복되면서 심리전 방송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된다. 해방 후 이승만으로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대북 심리전을 강조해 왔다. 방송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남북한 방송 상호 개방안, 김대중 정부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방송 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천안함 사태 이후 긴장·갈등이 증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창현, 2010).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이 추진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KBS의 사회교육방송은 한민족방송으로 바뀌면서 냉전적인 심리전 방송에서 탈냉전의 동질성 회복의 방송으로 변화되었다. 자연스럽게 방송의 목표 대상도 북한 주민에서 재외동포로 확대되고 프로그램도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문화, 예술 등의 내용이 많아졌다. 그런데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시기인 2005년, 탈북자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동질성 회복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간 대북방송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간 대북방송은 탈북자들에 의해 시작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을 붕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방송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민간 대북방송과 같은 민간 심리전 방송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승철, 2012).

한편, 2015년 11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방송’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⁵⁾’과 ‘자유아시아방송(RFA)⁶⁾’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간 대북방송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

5) 미국의 소리방송 VOA(Voice Of America): 미 방송위원회(Broadcasting of Governors)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방송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잡힌 뉴스와 정보를 전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어방송은 1942년 8월부터 시작했다.

6) 자유아시아방송 RFA(Radio Free Asia): 미국 의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VOA와 달리 아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미국 정부단체 지원이 아닌 민간 비영리단체 지원으로 운영된

다. 이에 대해 민간 대북방송 관계자들은 ‘미국이 미국 내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민간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민간 대북방송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⁷⁾

대북방송에 대한 수용 현황은 탈북자들에 대한 간접적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관지(2012)에 따르면 한국 거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90년대에는 KBS 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 아세아방송(현 제주극동방송), 기타 방송 순으로 청취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 외국의 한국어 방송이,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남한의 대북 단파방송인 북한개혁방송·열린북한방송·자유북한방송·자유조선방송 등의 민간 대북방송의 청취도 늘고 있다고 한다.⁸⁾ 민간 대북방송은 단파로 방송되기 때문에 중파에 비해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꾸준히 청취자가 늘고 있는 현상은 단파방송이 전파의 도달 범위가 넓으며 이들 방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탈북자들에 의해 방송되고 있고, 친숙한 억양과 북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작 남한 사회에서 대북방송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정책 방향은 없으며 그저 개별 대북방송사의 제작 방침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⁹⁾이다(배진아·곽광래·윤석민, 2009). 2016년 1월 8일, 북한의 핵폭탄 실험 직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¹⁰⁾을 시작하면서 확성기에서 전송되는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 방송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정도이다. 그렇지만 대북방송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학

다. 한국어 방송은 1997년 3월부터 시작됐다.

7) 지난해 8월 27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북한 주민을 청취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주파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명 ‘민간 대북방송제작지원법’이라고 불린다.

8)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2년 한국 거주 탈북자 1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 중, 청취 경험이 있는 대북방송으로 KBS 54.1%, 자유아시아방송 14%, 미국의 소리 방송 11.6%, 극동방송 3.4%, 자유북한방송 2.4% 순으로 나타났다.

9)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중 북한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방침, 한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기자협회 공동 북한 관련 보도 및 제작 가이드라인 제시, 이들 내용은 지상파방송의 대북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공식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10)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를 접경지역에서 확성기를 통해 송출한다. 1962년 시작되었으나,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중단, 1980년 재개, 2004년 남북 정상급 회담 후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재개 등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최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6년 1월 8일을 기해 다시 송출되고 있다.

술적 검토는 미흡하다. 북한이 대북방송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송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북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통일 및 대북방송에 대한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 집단의 잠재적 인식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이창현, 1998). 특별히 방송이 선택한 정보는 남북한 간 긴장 국면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여론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북방송 이해관계자들이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통일을 향한 방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2. 대북방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인식

1) 심리전 방송에서 민간 대북방송에까지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 변화에 따라 대북방송의 방향과 성격도 변화해 왔다. 분단 후 초기 대북방송은 남과 북의 체제 옹호와 상대 체제 전복 전술로써의 심리전 매체로 활용되었다(이내수, 1978). 이와 같은 대북방송의 성격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남한 사회에서 대북방송의 명칭이 사회교육방송에서 한민족방송으로 변경되기도 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간 대북방송들이 생겨나면서 KBS 등의 대북방송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대북방송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대북방송의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 체제의 냉전적, 심리적 방송의 시기다. 1950~1960년대는 냉전기로서 반공 이념이 국가의 중요한 통치 이념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북방송은 적대적 방송이 강조되었다(안민자, 2009). 냉전 시기 한반도에서 방송은 냉전이라는 조건하에 특정 방향으로 정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유용한 도구였다(이성민·강명구, 2007). 남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는 선언을 하면서 적대 방송이 일시 중지된 바 있지만 그 후로도 대북방송은 상호 비방을 계속해 왔다. 이후 1980년대 남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 체제 경쟁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대북방송은 북한 체제의 비판보다는 설득의 방송으로 방송 전략이 변화되었다(전근배, 2011). 그러나 본질

적으로 이 시기의 대북방송은 북한에 대한 심리전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설득전략이 자극적인 비판에서, 부드러운 설득으로 바뀌는 전술적 변화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송 시기다. 일찍이 남북통일을 대비한 방송 정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강현두·이창현(1989)은 통일 방송을 위한 단계론에서 제1단계는 상대방 주민을 위한 이념 동원의 중지이고, 제2단계는 상대방의 방송 청취를 제한하는 전파 교란의 중지이고, 3단계는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보여 주는 통일시간대의 편성이고, 4단계는 통일방송의 구현이라고 하였다. 송재극 외 3인(1992)의 보고서는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방송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언론연구원(1990)을 필두로 다양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방송의 역할과 관련된 사례가 소개되었고, 한국언론재단(1999)에서는 남북한 언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김대중 정부 시기 100대 중점 과제에 남북 방송 개방과 언론 교류가 포함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뉴스, 드라마 스포츠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기도 한다(강대인, 2001). 김대중 정부의 통일방송 정책은 6·15 정상회담 이후 햇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급격히 바뀌었고, 기존의 대북방송도 기존의 심리적 방송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대북방송이 변화되는 계기는 2003년 7월,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상호 비방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남북 방송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 북한에서의 생중계까지 진행되었고, 나아가 하종원·정길화(2000)는 방송 프로그램의 남북 공동 제작 시안 모델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언론의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방송이 동질성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한국언론재단, 2007)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남북한 간 언론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KBS 사회교육방송의 성격이 변화되었고, 적대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대북방송의 성격은 약화되었다. KBS의 사회교육방송은 2007년 '한민족방송'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상이 북한 주민뿐만이 아닌 재외동포, 한민족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명칭 변화는 사회교육방송의 목표 수용자를 북한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한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로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적대적 대북방송이 재개되는 계기가 된다. 2004년 남북 정상급 회담 후 전면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재개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민간 대북방송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통일방송의 기조와 다른 새로운 형

태의 대북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가 KBS사회교육방송을 ‘한민족방송’으로 바꾸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을 자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을 심리전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드라마가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사회교육방송 등이 성격을 바꾸어 가자 전통적인 대북방송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민간 대북방송이 하나둘씩 생겨났다.¹¹⁾ 이러한 민간 대북방송으로는 북한개혁방송·열린북한방송·자유북한방송·자유조선방송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민간 대북방송은 재정적 어려움과 통일을 위한 방송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가 통합해 현재 국민통일방송(열린북한방송과 자유조선방송, 그리고 인터넷 신문인 NK데일리 신문 통합)과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으로 크게 3개의 민간 대북방송이 북을 향해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민간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주파수는 제3국 주파수를 이용해 단파방송을 하고 있다. 민간 대북방송의 출현은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KBS의 사회교육방송 차원으로 이루어졌던 대북방송이 민간 대북방송의 출현으로 대북방송의 성격이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민간 대북방송은 정부의 통일 정책과 조화를 이

표 1. 국내외 대북 라디오 방송 유형과 운영 주파수 현황

주체	유형	대북방송명
국내	지상파 라디오 (중파)	KBS 한민족방송 (구, 사회교육방송) AM 972, 1170KHz (단파 6015KHz)
		FEBC 극동방송 AM 1188, 1566KHz
	민간 대북방송 (단파)	국민통일방송 2014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NK데일리 인터넷신문 통합 7515 KHz
		자유북한방송 11570KHz
	기타 종교 방송	북한개혁방송 7590, 9380KHz
국외	미국 (단파, 중파)	VOA(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방송 단파 7225, 15775, 9490, 11935, 중파 648, 1188KHz
		RFA(Radio Free Asia) 자유아시아방송 단파 5820, 7210, 7455, 9975, 7465, 중파 648, 1188KHz
	일본 (단파)	시오카제 6135, 5910KHz

11) (사)남북언론연구회(2013). <대북방송 백서>.

루면서 교류와 협력, 대북 압박에 기여할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 예기치 못한 남북관계의 정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북방송은 북한까지 전파가 도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출력이나 안테나의 방향(지향성)설정 등 기술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중파 라디오에 대한 방해전파(jamming)로 정보 유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100Kw이상으로 송출해야만 북한 주민들이 대북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상파 방송으로 KBS 한민족방송(구, 사회교육방송)과 종교 방송인 극동방송이 60여 년 이상 대북방송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 대북방송이 있으나 민간 대북방송사들은 정부가 국내 송출을 허가해 주지 않아 제3국의 송신소를 통해 단파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지원으로 송출되고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 Voice Of America)과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이 있으며, 이들은 단파방송과 함께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빌려 매일 8시간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한편, 영국 BBC도 지난 해 단파라디오를 이용한 대북방송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에서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을 위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대북방송 기존 연구와 전문가 인식 연구

대북방송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KBS의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민간 대북방송 관련 연구는 몇 개 없는 형편이다. 대북방송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그것조차도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북방송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안민자(2009)의 연구에서는 대북방송의 매체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한민족방송의 역사적 흐름과 정권 변화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편성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미디어의 4가지 기능인 환경 감시 기능, 상관 조정 기능, 문화유산 기능, 오락 기능이 반영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창현(1999)은 북한방송 관련 연구가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주제와 특성이 변화된다고 밝히고, 남북이 긴장 체제에 있을 경우 환경 감시, 상관 조정이 강조되며, 화해 모드에서는 문화, 오락 등의 연성 프로그램이 강조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연구도 나오기 시작한다. 전근배(2011)는 KBS 한민족방송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민간 대북방송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연구했다. 그러나 민간 대북방송의 역사와 개요를 정리할 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은 아직까지 자세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대북방송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면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다.

대북방송의 수용자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탈북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방송 수용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연구는 북한에서의 수용 현황, 그리고 탈북 과정 중의 라디오 수용, 남한 사회 이주 후 미디어 수용 등 3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이미나·오원환(2013)은 이와 같은 탈북의 시기에 따른 한국 미디어 수용 경험을 연구했다. 김익환(2011)은 탈북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북방송에 있어 라디오가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제안했다. 최명국(1982)은 종교 방송으로 대북방송을 수행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중국 거주 청취자들의 편지를 분석, 정리해 민족의 동질감이 강조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대북방송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대북방송 관계자에 대한 인식 연구도 필요하다. 이들의 인식이 프로그램의 편성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이우승·영선, 2006). 대북방송 관계자는 크게 보면 KBS 한민족방송, 극동방송과 민간 대북방송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소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식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Q 연구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Q 인식 연구에서는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송에 대한 전문적 인식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많았다. 먼저 이창현(1998)은 한국 방송 영향력자의 방송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30명의 대표적 방송 영향력자를 대상으로 인식 연구를 실시해 인식 유형을 크게 ‘공익적 계도론’과 ‘상업적 자율론’으로 분류했다. 정운서(2012)는 신문기자들이 뉴스 가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뉴스 제작자인 기자들의 인식 연구를 실시했다. 제작 환경이 변화하면서 뉴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21명의 신문기자 집단을 대상으로 Q 소팅을 실시해 해석 저널리즘과 시장 지향적 저널리즘, 뉴저널리즘 요인을 찾아냈다. 아울러 통일방송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로는 방송의 통일 이념 실천에 관한 주요 관계자의 인식(배진아·곽정래·윤석민, 2009)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 관계자 7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해 관계자들이 통일을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대북 소통의 매체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DVD, MP3, CD-R, USB, 노트텔¹²⁾ 등 비

12) 노트텔은 DVD를 대체할 새로운 포맷으로 개발된 중국산 EVD(Enhanced Versatile Disc)플레이어를 일컫는 말로 2005년 이후 저가로 공급되면서 북한 지역에 대량 유통되었다(강동완, 2014).

교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DVD, 노트북을 통해서도 대부분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인권 의식을 전달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데는 여전히 라디오를 통한 대북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 10년째를 맞는 민간 대북방송 주요 관계자들의 인식도 포함돼 전체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기존 대북방송 제작자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통일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학자들의 인식도 포함해 대북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 연구는 대북방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Q 연구를 통해 ‘마음’을 읽어 내는 것으로, 연구문제는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갖는 통일 과정에서의 방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로 정했다.

3. 연구방법론: Q 방법론

Q 방법론은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이 <네이처>에 기고하면서 처음 알려진 것으로,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찾아내는 조사방법론이다. Q 방법론의 요인 분석 단위는 질문의 ‘항목’이 아닌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점이 전통적인 R 방법론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Q 방법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김홍규, 1990).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해 갖는 전문가의 태도와 의견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 유형 간의 유사성과 상반성을 찾아냄으로 주제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강현두, 1989). 이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의 이러한 주관성 연구의 유용함을 활용해 대북방송 관계자들이 갖는 통일 과정에서의 방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전통적 Q 방법을 기반으로 1단계에는 유형별 차이를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2단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찬성과 반대의 경향성을 파악해 내고, 각 유형을 긍정과 부정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는 노력을 추가하고자 한다.

1) 연구 설계 및 절차

(1) Q 진술문(Q sample)

이 연구를 위해 대북방송과 관련된 기존 문헌 연구와 대북방송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얻은 예비 진술문 100여 개를 작성하고, 대학원 학생 6명에 대한 예비 테스트를 수행한 후 최종

진술문 60개를 확정했다. 대북방송 전문가들을 P샘플로 임의 선정한 후 이들에게 진술문 형태의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Q-sorting)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 점수별로 진술문의 수를 지정해 정규 분포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소팅(forced sorting technique) 방법을 사용해서 얻어진 자료를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진술문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 및 민족 인식에 대한 진술문 15개, 대북방송 일반에 대한 진술문 15개,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내용 15개, 남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 15개로 총 60개의 진술문을 구성했다(〈부록 1〉 참조).

(2) P표집(P-sample): 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 기간

Q 방법론은 R 방법론과 달리 다수의 조사 대상자(P표집)가 필요하지 않다. Q 방법론은 개인 간 차이가 아닌 개인 내 중요성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P표집의 선정에 있어 대상자 수는 제한이 없다(김흥규, 1998). 이 연구에서는 대북방송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를 위해 대북방송(지상파방송, 민간 대북방송, 국외 대북방송)과 관련된 전문가, 즉 방송 제작자와 연구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집단은 기존 대북방송인 KBS 한민족방송과 극동방송에서 선정된 대북방송 담당자들로,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다. 각 방송사에서 20년 이상 대북방송을 해 온 제작자와 현재 대북방송 제작 책임을 맡은 제작부장, 제작PD, 탈북자 출신 방송인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둘째 집단은 민간 대북방송 관계자들로, 국민통일방송과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방송사 대표들과 주요 제작진들을 선정했다. 연구에 참여한 민간 대북방송 대표 3명 중 2명은 탈북자 출신이다. 셋째 집단은 국외 지원을 받는 대북방송의 한국 지국장 및 관계자를, 넷째 집단은 대북방송 및 통일 연구를 하는 연구자 집단으로 각각 선정했다. 총 16명의 대북방송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P표본은 〈표 3〉 Q 분석 결과 유형 분포에서 확인)

(3) Q-분류(Q-sorting)

이 연구에서는 각 진술문을 ‘찬성한다’와 ‘반대한다’의 정도에 따라 〈표 2〉와 같이 1점에서

표 2. Q 진술문의 점수부여 분포도

진술문의 수	3장	6장	8장	8장	10장	8장	8장	6장	3장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강한반대 ←		중립			→		강한찬성	

9점까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분류된 진술문의 수를 지정해 정규 분포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소팅을 실시했다. 강제적 분포는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 독립성이 결여됨을 말한다. 이는 한 항목에 점수를 주는 것이 다른 항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점이 Q 방법론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는 일반적 방법론과 같이 찬성, 반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주어진 항목들에 대한 인식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순서를 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김흥규, 1990).

Q분류는 먼저 긍정과 중립, 부정으로 크게 나누게 한 뒤 양 끝에서부터 점차 가장 동의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을 순서대로 주어진 개수만큼 채우도록 한다. 진술문 카드 소팅이 끝난 후에는 양끝의 가장 찬성과 가장 반대의견 3개에 관해서는 각각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들여보았고 이 내용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는 데 활용하였다.

4. Q 분석 결과 및 해석

1) 유형 및 요인별 대상자 분포

Q요인 분석 결과 2개의 유형으로 분류가 됐다. 전체 16명의 P샘플 중 <유형 1>에 속하는 사람은 8명, <유형 2>에 속하는 사람도 8명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유형 1>에는 각 방송사를 대표하거나 오랜 기간 대북방송을 한 사람, 탈북자 방송인들이 포함된다. <유형 2>의 경우 대북방송 유형에서 국외로 분류된 대북방송 관계자와 대북방송·민간 대북방송 소속이지만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관계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유형별로 가중치가 높은 사람이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다.

2) 1단계: 전통적 Q 연구의 유형별 특성

(1) <유형 1>의 개별적 특성

<유형 1>에서 찬성하는 진술문($Z_{값} > 1$) 11개와 반대하는 진술문($Z_{값} < 1$) 12개를 분석해서 <유형 1>의 특성을 파악한다. <유형 1>은 통일은 자유주의 체제로 남한이 주도해야 하며(Q1),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올 것(Q14)이라는 기본적 통일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Q3)고 인식한다. <유형 1>은 대북방송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고(Q8)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 인권 의식을 심어 줘야 하며(Q7) 북한의 이상화를 비판해야 한다(Q42)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표 3. Q 분석 결과의 유형 분포

	번호	조사 대상자	대북방송기간	1	2	COM.
유형 1	1	극동방송 이사, 대북방송 진행자	30년	.249	-.059	.066
	11	전 KBS 한민족방송 PD	25년	.256	.066	.070
	8	민간 대북방송 대표	8년	.483	-.215	.280
	5	민간 대북방송 대표	10년	.567	-.256	.386
	7	민간 대북방송 부대표, 탈북자	10년	.669	-.388	.598
	9	KBS 한민족방송 제작부장	5년	.832	-.612	1.067
	2	극동방송 진행자, 탈북자	6년	.820	-.673	1.125
	3	민간 대북방송 대표	10년	.687	-.573	.800
유형 2	16	**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001	.344	.118
	15	**대학교 박사과정		-.004	.305	.093
	10	극동방송 대북방송PD	7년	-.059	.333	.115
	4	전VOA지국장	3년	-.260	.552	.372
	12	RFA지국장	6년	.111	.223	.062
	13	**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		-.234	.462	.269
	6	민간 대북방송 제작부장	10년	.118	.231	.067
	14	**대학교 연구원		-.497	.725	.773
변량		요인별 변량		.2104	.1810	.3914
		축적 변량		.2104	.3914	

민간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만들도록 해야 하고(Q35), 남한 사회의 장점을 잘 알려야 한다(Q33)고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Q43)과 재정 지원(Q37)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유형 1>은 민간 대북방송이 단일 채널로 해야 한다는 것(Q41)과 민간 대북방송에 대해 내용 규제(Q36)를 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민간 대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이 선정적이다(Q31)라는 것과, 정치보다는 문화, 예술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Q23)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해야 한다(Q27)는 등 북한 사회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Q44), 북한 사회를 일방적으로 자극하면 안 된다(Q19), 북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방송해야 한다(Q18)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한, 대북 확성기(Q46)와 대북 뼈라 살포(Q48)에 적극 동의하는 등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비

표 4. <유형 1> 찬성과 반대 의견

Q번호	진술문 (유형 1-찬성)	Z값
Q7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1.88
Q42	민간 대북방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를 비판해야 한다.	1.77
Q1	통일은 자유주의 체제로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	1.66
Q8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1.63
Q35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1.33
Q43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	1.25
Q30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의 정보원 취재 시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1.20
Q14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1.15
Q33	민간 대북방송은 남한 사회 체제의 강점을 잘 알려야 한다.	1.14
Q46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05
Q3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2

Q번호	진술문 (유형 1-반대)	Z값
Q48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빠라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	-1.92
Q23	대북방송 일반은 정치보다는 문화, 예술적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1.74
Q27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1.62
Q36	민간 대북방송도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1.54
Q44	민간 대북방송이라도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1.50
Q41	민간 대북방송은 단일 채널로 방송되어야 한다.	-1.49
Q31	민간 대북방송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1.46
Q19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사회를 일방적으로 자극하면 안 된다.	-1.39
Q53	남북한 간 비방 방송을 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1.18
Q18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1.11
Q11	보수 정권에서 남북한 간 갈등이 강화되었다.	-1.05
Q32	민간 대북방송은 탈북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1.05

방 방송이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는 지적(Q53)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2) <유형 2>의 특성

<유형 2>에서 찬성하는 진술문(Z값 > 1) 12개와 반대하는 진술문(Z값 < 1) 7개를 분석하여 유형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들은 <유형 1>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찬성하는

의견에 있어 평화통일을 지향(Q4)하고 있으며, 대북방송이 문화적 이질감 완화(Q55)에 기여해야 하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서(Q8) 방송이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Q3)에 동의한다. 이 유형은 남북한 간 사회 통합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Q5), 북한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Q22)고 한다. 대북방송의 경우에는 북한 관련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하며(Q28),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 지양(Q29), 정확성 강조(Q20), 방송 전문인의 자질이 필요(Q34), 남북한 방송 교류 필요(Q56) 등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은 방송의 전문성과 관련된 것이 많다. <유형 2>에 속한

표 5. <유형 2> 찬성과 반대 의견

Q번호	진술문 (유형 2-찬성)	Z값
Q4	남북한 간에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2.18
Q8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1.63
Q28	대북방송 일반은 탈북자들을 통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1.62
Q29	대북방송일반은 북한 관련 뉴스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1.56
Q55	남북한 방송은 문화적 이질감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	1.49
Q12	통일을 위해 민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42
Q20	대북방송 일반은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해야 한다.	1.39
Q3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7
Q34	민간 대북방송 제작자도 방송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	1.08
Q22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1.05
Q56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한 방송 교류가 필요하다.	1.03
Q5	남북한 사회 통합은 남북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1.02
Q7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94

Q번호	진술문 (유형 2-반대)	Z값
Q41	민간 대북방송은 단일 채널로 방송되어야 한다.	-2.14
Q46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09
Q32	민간 대북방송은 탈북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2.06
Q35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1.59
Q57	기존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한다.	-1.31
Q39	민간 대북방송은 라디오가 가장 좋은 매체다.	-1.25
Q24	대북방송 일반은 남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	-1.08
Q36	민간 대북방송도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94

관계자들이 주로 젊은 제작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국외 지원 방송 관계자임을 볼 때 이들이 추구하는 대북방송, 민간 대북방송은 역시 남북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송의 교류와 협력이, 그리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반대 의견으로는 기존의 통일 프로그램이 북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강화한다(Q57)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지나치게 남한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등의 방송을 지양해야 한다고(Q24) 생각하고 있으며, 대북방송에서 탈북 경로를 알려주는(Q32) 등의 민감한 내용은 자제하고, 방송이 나서서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만들도록 하는 것(Q35)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이 유형은 대북 활성화 방송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Q46)을 갖고 있으며, 민간 대북방송의 채널이 단일화되는 것(Q41)이나 민간 대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 규제(Q36)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유형 1> 과 <유형 2> 의 차이 특성

유형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유형 1>의 Z값이 높고, <유형 2>의 Z값이 낮은 진술문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 <유형 1>은 자유주의 방식의 통일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민간 대북방송의 적극적 북한 비판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가장 차이가 큰 것은 휴전선 대북 활성화 방송을 해야 한다(Q46 차이값 = 3.139)는 인식이고,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Q14 차이값 = 1.929), 통일은 자유주의 체제로 남한이 주도해야 하며(Q1 차이값 = 2.467),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의 이상화 체제를 비판하고(Q42 차이값 = 2.653),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Q35 차이값 =

표 6. 유형 간 차이에서 <유형 1>의 찬성이 높은 것

Q번호	진술문	유형 1	유형 2	차이
Q46	휴전선 대북 활성화 방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051	-2,088	3,139
Q35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을 자유주의체제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1,332	-1,586	2,919
Q42	민간 대북방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상화를 비판해야 한다.	1,769	-.884	2,653
Q1	통일은 자유주의 체제로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	1,662	-.805	2,467
Q39	민간 대북방송은 라디오가 가장 좋은 매체다.	.706	-1,255	1,960
Q14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1,152	-.777	1,929
Q43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	1,249	-.567	1,816
Q47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사회의 종교적 자유를 잘 알려야 한다.	.917	-.855	1,772
Q33	민간 대북방송은 남한사회체제의 강점을 잘 알려야 한다.	1,139	-.615	1,754
Q37	민간 대북방송은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966	-.755	1,721

표 7. 유형 간 차이에서 <유형 2>에 찬성이 높은 것

Q번호	진술문	유형 1	유형 2	차이
Q48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삐라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	-1.922	.421	-2.343
Q4	남북한 간에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151	2.182	-2.333
Q19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사회를 일방적으로 자극하면 안 된다.	-1.382	.767	-2.148
Q12	통일을 위해 민간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564	1.421	-1.984
Q22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931	1.053	-1.983
Q18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1.106	.841	-1.948
Q53	남북한 간 비방방송을 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1.178	.668	-1.845
Q44	민간 대북방송이라도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1.498	.317	-1.815
Q28	대북방송 일반은 탈북자들을 통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234	1.617	-1.384
Q11	보수정권에서 남북한 갈등이 강화되었다.	-1.050	.266	-1.316

2.919)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민간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라디오가 가장 좋은 수단(Q39 차이값 = 1.960)이며, 정부에서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Q43 차이값 = 1.816),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Q37 차이값 = 1.721)고 주장한다.

개별적인 유형 특성과 차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유형은 민간 대북방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을 자유화하는 방송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갖기에 “북한자유화방송”이라 칭할 수 있다.

유형 간 차이 분석 중 상대적으로 <유형 2>의 Z값이 높고, <유형 1>의 Z값이 낮은 경향으로 선택된 진술문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장 차이가 큰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삐라의 살포도 자제해야 한다(Q48 차이값 = -2.343)는 것이고, 남북한 간에는 민간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Q12 차이값 = -1.984)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고(Q4 차이값 = -2.333), 대북방송은 북한 사회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거나(Q44 차이값 = -1.815) 자극하지 말고(Q19 차이값 = -2.148)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보도(Q18 차이값 = -1.948)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Q22 차이값 = -1.983)고 말한다. 이 유형은 비방 방송이 냉전의 산물(Q53 차이값 = -1.845)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한 간의 갈등이 많아졌다(Q11 차이값 = -1.316)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과 남북한 간 교류 협력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여 주고 언론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2유형을 ‘남북교류협력방송’이라 칭한다.

유형의 특성을 통일 인식의 주제로 나누어 종합해 보면 <표 8>과 같다. 바람직한 통

표 8. 주제별 유형 인식 차이 비교

주제	유형 1: 북한자유화방송	유형 2: 남북교류협력방송
통일 인식	북한 자유화 남한 주도의 민주주의 통일 방식 통일은 가까운 미래	전쟁 없는 평화 지향 상호 합의의 평화적 통일 방식 통일은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
남북 커뮤니케이션	확성기 방송 필요 대북 삐라 살포 필요	확성기 방송 반대 대북 삐라 살포 자제 민간 분야 교류와 협력 필요
대북방송 일반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 중요 강한 논조의 북한 비판 필요	방송의 전문성 강조 객관적, 중립적 정보 확인 자극적 내용 피해야
민간 대북방송	주파수 배정, 재정적 지원 민간 대북방송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	북한을 폄하하지 말아야 민간 대북방송 제작자의 전문성 강화해야

일에 대한 질의에 <유형 1>에 속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한 주도하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식을 거론했으며, <유형 2>의 경우는 상호 합의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져서 북한의 경제 발전, 주민들의 의식 변화, 문화적 격차가 좁혀졌을 때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통일의 시기(Q14)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형 1>의 경우는 10~20년 내, 빠르면 5년 이내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통일에 대한 바람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 2>는 현실적으로 통일의 시기는 알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다만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사회 통합이 이루어 가는 장기적 관점의 통일을 거론했다.

남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삐라살포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2016년 1월 8일 휴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후에 진행된 이 연구는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확성기 방송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유형 1>은 확성기 방송은 굳, 주민들의 의식 속에 통일 의식을 심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형 2>는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서도 <유형 1>은 살포해야 된다고 했지만, <유형 2>는 반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북방송 일반에 관한 주제에서 <유형 1>은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강한 논조의 북한 비판을 강조하는 반면, <유형 2>의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방송의 전문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간 대북방송 관련 주제에서 <유형 1>은 민간 대북방송의 강한 어조가 북한 내부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북한이 변화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

으며, 주파수의 배정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유형 2>는 민간 대북방송이 북한을 편하하면 안 되고, 방송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Q 분석 방법에 따라 나타난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북방송 관계자들은 자유, 민주, 인권 의식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개혁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대북방송과 민간 대북방송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북방송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프로그램에 반영돼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1단계의 유형 차이 분석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적 분석을 실시한다.

3) 2단계: 대북방송 관계자 인식의 심층적 이해

(1) 인식의 경향성

1단계의 연구는 전통적 Q 분석을 통한 유형 간 차이에 집중해서 의미를 파악했다면, 2단계의 연구는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긍정과 부정의 차이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단순 평균값을 구했고, Q 분석 결과에 있는 유형 간 합의(consensus)를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경향성 분석은 차이 분석에 집중한 Q 연구와는 달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집단적 인식의

표 9. 긍정적 동의의 경향성: 통일방송역할론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합의 진술문 Z값
Q8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7.63	1,310	1.63
Q7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7.44	1,825	1.41
Q3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94	1,436	1.15
Q4	남북한 간에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6.94	2,351	
Q55	남북한 방송은 문화적 이질감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	6.75	1,653	
Q29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관련 뉴스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6.69	1,621	
Q30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의 정보원 취재 시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6.44	1,590	0.75
Q34	민간 대북방송 제작자도 방송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	6.38	1,784	0.85
Q20	대북방송 일반은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해야 한다.	6.19	1,940	
Q51	북한의 장마당 도입 등 사회 변화를 알려야 한다.	6.13	1,360	0.72

평균치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의 주관성연구팀¹³⁾은 Q 유형 분석을 평균값을 통해 경향성을 분석하고 유형을 세분화해 긍정과 부정의 세부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1단계 유형 간 차이를 분석을 확장해 해석하는 방법으로 세부 인식 유형을 이끌어냈다.

1단계의 결론으로 전통적인 Q 방법에 의해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이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여기서 더 많은 인식의 유형을 끌어내기 위해 한 유형에서의 찬성과 반대 진술을 분리해 유형을 세분화해 본다. 이럴 경우 대북방송에 대한 인식 유형 중 부정형으로 잠재된 인식을 부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먼저 두 가지 방향성을 살펴보고 그 틀을 토대로 각 유형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눠 분석해 본다. 단, 여기서 반대 의견 진술문을 역해석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의 의견으로 해석하므로 P표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대북방송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발견하게 된다.¹⁴⁾ 대북방송 관계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대북방송이 남북 커뮤니케이션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대북방송도 방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 저널리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인권 의식을 심어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동의의 경향성은 ‘통일방송역할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하위 10개의 문항들은 대북방송 관계자들이 가장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문항들 자체로 대북방송 인식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문항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문항 그대로 하나의 방향성으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민간 대북방송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면에 치우쳐 선정적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대북 배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 이란희(2015)의 ‘조직 구성원의 팔로워십과 리더십 인식 유형 및 상용관계 탐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업무 중심’과 ‘관계 중심’으로 2가지 방향성을 잡고, 4가지로 나타난 인식 유형의 긍정과 부정을 나눠 설명한다. 각 유형의 긍정을 ‘스태프’, ‘일꾼’, ‘공생가’, ‘자유영혼’으로 네이밍하고, 부정 영역으로 나타난 분야를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해 ‘수완가’, ‘구경꾼’, ‘독자생존가’, ‘심복’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더 풍성한 의미를 끄집어낸다. 결과로 도출된 Q 요인별로 긍정, 부정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서로 다른 심리적 준거점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4) 이란희(2015)는 평균값의 상위, 하위 10개 문항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내용들은 이후 Q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도 진술문의 평균값 상위 10개 문항과 하위 10개 문항을 통해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가장 동의하는, 반대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대북방송·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비교 결과 평균값의 방향과 Z값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10. 부정적 동의의 경향성: 민간방송규제론

번호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합의 진술문 Z값
Q41	민간 대북방송은 단일 채널로 방송되어야 한다.	1,88	0,719	-1,82
Q32	민간 대북방송은 탈북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2,56	1,788	
Q36	민간 대북방송도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2,75	1,653	-1,24
Q27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2,88	1,586	-1,18
Q31	민간 대북방송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2,94	1,879	-1,15
Q23	대북방송 일반은 정치보다는 문화, 예술적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19	1,721	
Q57	기존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한다.	3,25	1,291	-1,05
Q48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빠라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	3,31	1,991	
Q11	보수정권에서 남북한 간 갈등이 강화되었다.	3,63	1,893	
Q44	민간 대북방송이라도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3,69	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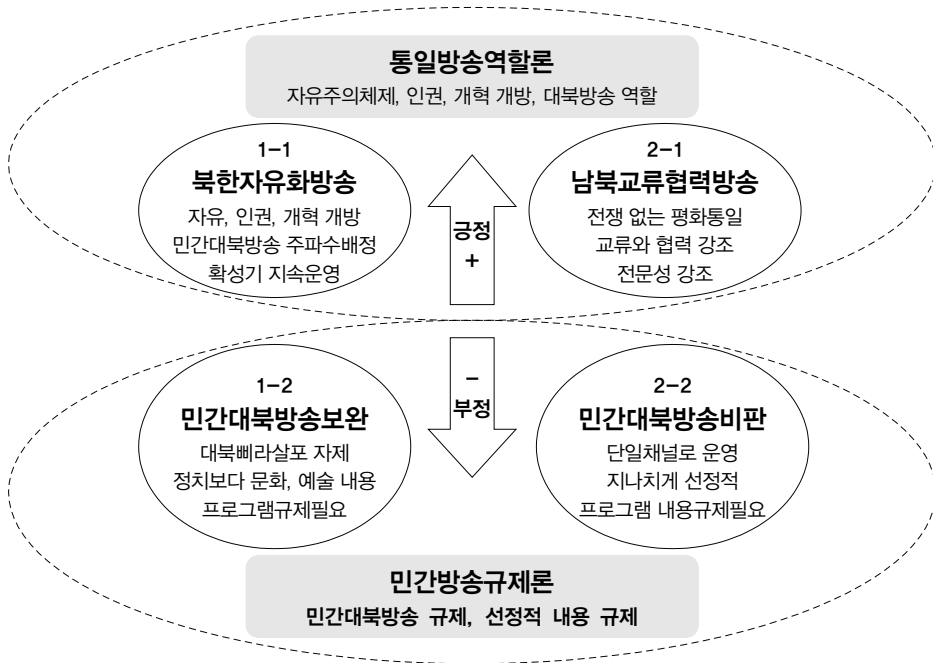
그러므로 반대의 경향성은 ‘민간방송규제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 유형의 도출과 부가적 해석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의 인식을 찬성과 반대의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독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보다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유형 1>의 동의하는 내용 상위(Z값 > 1)를 <세부 유형 1-1>에, 반대 내용(Z값 < 1)을 <세부 유형 1-2>로, 그리고 <유형 2>의 동의 내용이 <세부 유형 2-1>로, 반대를 <세부 유형 2-2>로 분류한다. 첫째 <유형 1>의 부가적 해석을 위해 긍정과 부정으로 유형을 세분화시켜 보면 <세부 유형 1-1>로 ‘북한자유화 방송’과 <세부 유형 1-2>로 ‘민간대북방송보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북한자유화방송’은 남한 주도의 통일론으로, 북한을 자유화하는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민간 대북방송, 그리고 확성기 방송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반대 의견으로 형성된 또 하나의 세부 유형은 민간 대북방송이 선정적이고, 따라서 프로그램 규제와 단일 채널에 대해 논하는 등 민간 대북방송의 축소, 그리고 빠라 살포 자제, 정치적 면보다는 문화, 예술 등의 연성화된 내용 편성 등 북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대북방송에 대한 의견으로 소극적 남북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민간대북방송보완’의 의미를 품고 있는 세부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 <유형 2>의 세부 유형을 나누기 위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분리해 보면 다음과

그림 1. 인식의 방향성과 세부 인식 유형



같다. 찬성 의견을 담은 <세부 유형 2-1>은 남북한 간 방송 교류를 통해 이질감을 완화하고 전문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기에 이를 ‘남북교류협력방송’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방송의 역할을 주문하는 입장이다. 반대 의견의 <세부 유형 2-2>는 민간 대북 방송이 선정적이고 규제해야 하며 단일 채널로의 방송을 지향하는, 즉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반대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은 소극적 남북한 커뮤니케이션 입장을 갖고 민간 대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민간대북방송비판’으로 유형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Q 연구 결과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세부적인 유형의 개발을 추진해 보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정리된다.

5. 결론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나갔다. 냉전시대의 남·북한 간 심리전 방송으로 시작된

대북방송은 6·25 전쟁기를 거치면서 적대적인 방송의 원형이 만들어졌고, 6·15 정상회담 이후의 상호 비방 금지와 화해 협력의 과정 속에서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으로 변화했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뼈라가 살포되고 확산기 방송이 재현되는 등 남북한 간 갈등은 '미디어의 재냉전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6·25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냉전 시기의 미디어 현상이 냉전 시기 이후인 현 상황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의 재냉전화 속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동질성 회복의 노력보다는 적대적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일반 국민의 반공 의식을 계발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 대북방송은 그 이전의 한민족방송의 형태보다는 훨씬 노골적으로 심리전 방송을 해 왔고, 이것이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면서 남북한 간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민간 대북방송의 내용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어 북한이 자유화되도록 하는, 즉 북한 체제를 붕괴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간 대북방송 관계자의 인식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1단계로 전통적인 Q 분석을 통해 유형을 찾아냈고, 2단계로 유형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전체 응답의 경향성 분석을 통해 경향성의 축을 찾아 유형을 긍정과 부정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1단계의 전통적인 Q 분석의 결과,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다. <유형 1>은 대북방송이 때로는 북한 사회를 자극하는 발언과 북한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며, 북한 정권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까지 KBS의 한민족방송이나, 극동방송과 같은 방송이 하지 못했던 강력한 북한 비판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중파 라디오 방송을 위한 주파수의 배정과 함께 재정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을 갖는다. 즉, 북한의 전파 방해로 피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북방송의 전파가 송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필요하며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민간 대북방송 담당자들은 북한 사회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대북방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 2>의 경우는 학자나 젊은 대북 방송인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이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유형은 기존 대북방송과

민간 대북방송 모두에 대해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이 가져야 할 기본적 의무인 정확성, 공정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한편, 통일을 남한이 주도한다는 식의 표현을 자제해야 하고,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삐라 살포 등의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 밖에도 역대 통일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하면서 확고한 원칙하에 다차원적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북한 정권뿐만 아닌 북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대북방송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간 대북방송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한 방송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이질성을 완화하고 동질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기본 논리와 함께한다. 이와 같이 대북방송을 둘러싸고 북한 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류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 차이에 근거해서 <유형 1>은 '북한자유화방송'으로 칭하고, <유형 2>는 '남북교류협력방송'으로 칭했다.

Q 분석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면 우선 경향성에 집중해 볼 수 있다. 찬성의 경향성을 정리해 보면 대북방송 관련 전문가들은 방송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방송역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형 1>, 북한자유화방송과 <유형 2>, 남북교류협력방송이 대북방송을 바라보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교류 협력을 강조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반대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면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즉, 민간 대북방송의 채널을 단일화한다든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거부하고, 선정적이라는 인식에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민간 대북방송 규제라는 사회적 인식에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향성을 정리해 보면 민간 대북방송 규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에 이를 '민간방송규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1> 가운데 세부적 반대 유형은 현재의 민간 대북방송의 내용이 정치보다는 예술적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서 '민간대북방송보완'이라고 세부 유형을 말할 수 있지만, <유형 2>의 남북교류협력방송의 경우 민간 대북방송은 단일 채널로 방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현재 탈북 경로를 알려주거나,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간대북방송비판'

이라고 세부 유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민간 대북방송의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전문가적 인식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대북방송의 실태와 방송 관계자의 인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북방송의 주체가 다양해진 만큼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었던 대북방송 일반과 민간 대북방송의 역할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방송 관계자들은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크다는 점, 그리고 방송을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통일 주체나 대북방송의 논조, 전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 간 비교를 통해 대북방송을 만들어 감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우선적으로 대북방송, 통일방송에 대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방송 관계자들은 대부분 정권에 따른 통일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방송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었다. 대북방송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통일에 있어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사회의 자유주의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영역의 대북방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주파수의 배정이나,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유형 2>의 경우 방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민간 대북방송의 경우는 방송 전문가보다는 방송의 경험이 없는 인적 구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방송 제작에 있어 수용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 대북방송의 청취자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수용자와의 직접적 접촉은 어렵지만 탈북자, 중국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을 통해 이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 북한의 상황 변화, 청취층 변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방송사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 사회는 외부의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북한에 전달되는 대북방송의 내용이 어떤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제작되는지를 파악해서 대북방송의 정책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별히 대북방송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대북방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강동완 (2014). 북한에서의 한류현상과 사회변화. <통일시대와 미디어의 역할>, 2014. 11. 남북언론 연구회.
- 강대인 (2001). 남북 방송교류정책의 연원과 추진방향. <방송연구>, 53권, 7~43.
- 강현두 (1989). 한국방송영향력자의 공영방송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학논선>, 1권, 1~52.
- 강현두 (1991). 남북한 방송교류의 현황과 미래의 모색. <방송문화연구>, 3권, 31~42.
- 강현두·이창현 (1989). 통일지향의 방송을 위하여. <방송문화>, 1989. 10. 60~62.
- 김승철 (2006). 민간대북방송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 2006. 5. 92~100.
- 김영보 (2012). 사회통합과 방송의 역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익환 (2011). 대북 라디오 방송청취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탁 (1991). 언론인의 북한관 및 통일관 의식조사. <남북통일과 언론>, 15권, 9~93. 한국언론연구회.
- 김홍규 (199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광고 연구를 중심으로. <언론학논선>, 9권, 6~62.
- 사이먼 와츠·폴 스테너 저, 백평구 역 (2014). <Q방법론 연구의 실행-이론·방법·해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홍규·김우룡 (1998). 텔레비전 뉴스 수용자의 유형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3호, 5~36.
- 부경희 (1988). Q-방법론을 이용한 기업이미지 분석과 홍보전략: S그룹의 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호, 32~76.
- 송재극 (1992). 남북통일을 대비한 방송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92-01. 통신개발연구회.
- 안민자 (2009). 대북방송의 정체성 변화와 프로그램 편성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관지 (2012). 미디어와 북한선교 라디오를 중심으로. <북한선교학교>, 2015년 2호.
- 이내수 (1978). 대적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수행에 관한 연구: 심리전의 기초이론 정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체계적 적용.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란희 (2015). 조직 구성원의 팔로워십과 리더십 인식 유형 및 상응관계 탐색. 연세대학교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미나·오원환 (2013).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문화 적응-탈북청년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봄호, 75~101.
- 이성민·강명구 (2007). 기독교방송의 초기 성격에 관한 연구 1954~1960, 냉전시기 라디오 방송환경과 선교방송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권 6호, 407~456.
- 이우승·영선 (2006). 국내방송의 북한 관련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KBS의 9시 종합뉴스와 남북의 창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258~369.
- 이주철 (2008).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수용태도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46집, 233~252.

- 이창현 (1998). 한국방송 영향력자의 방송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공익적 계도론”과 “상업적 자율론”. <한국방송학보>, 11호, 117~146.
- 이창현 (1999). 남한에서의 북한방송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2호, 137~173.
- 이창현 (2010. 11). <냉전과 한국방송: 그 기억의 역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16.
- 전근배 (2011). 민간대북 라디오방송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서 (2012). 신문기자의 뉴스가치에 대한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24호, 25~44.
- 최명국 (1982). 중공거류교포에 대한 선교방송효과에 관한 연구—교포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언론연구원 (1990). <독일통일과 언론>. 언론연구원 총서 10.
- 한국언론재단 (1999). <남북한언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한국언론재단 (2007). 남북정상회담과 언론보도, 조사분석 2007-7.
- 하중원, 정길화 (2000). 남북 방송공동제작의 시안적 모델 연구. 2000-08, 57~85. n Press.

투고일자: 2016. 1. 31 게재확정일자: 2016. 3. 20 최종수정일자: 2016. 3. 23

부록

<p>통일 인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은 자유주의 체제로 남한이 주도해야 한다. 2. 동서독 통일은 남북한 통일의 좋은 모범이다. 3. 통일에 있어 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남북한 간에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5. 남북한 사회 통합은 남북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6.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8.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9. 북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적 입장을 전해야 한다. 10. 남북한 관계는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가 필요하다. 11. 보수 정권에서 남북한 간 갈등이 강화되었다. 12. 통일을 위해 민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통일 과정에서 남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14.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15.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도 잘 알려져야 한다.
<p>대북방송 일반 (KBS 한민족방송과 극동방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대북방송 일반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알려야 한다. 17. 대북방송 일반은 탈북자들의 탈남 현상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18.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사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19.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사회를 일반적으로 자극하면 안 된다. 20. 대북방송 일반은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해야 한다. 21. 대북방송 일반은 흥미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22.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23. 대북방송 일반은 정치보다는 문화, 예술적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24. 대북방송 일반은 남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 25. 대북방송 일반은 남한의 촛불시위 등 사회적 갈등도 알려야 한다. 26. 대북방송 일반은 개성공단 등 남북한 교류 협력의 성과를 알려야 한다. 27.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28. 대북방송 일반은 탈북자들을 통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29.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 관련 뉴스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30. 대북방송 일반은 북한의 정보원 취재 시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p>민간 대북방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민간 대북방송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32. 민간 대북방송은 탈북 경로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33. 민간 대북방송은 남한 사회 체제의 강점을 잘 알려야 한다. 34. 민간 대북방송 제작자도 방송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하다. 35.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36. 민간 대북방송도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37. 민간 대북방송은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8. 민간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39. 민간 대북방송은 라디오가 가장 좋은 매체다. 40. 민간 대북방송은 TV방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p>41. 민간 대북방송은 단일 채널로 방송되어야 한다.</p> <p>42. 민간 대북방송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를 비판해야 한다.</p> <p>43.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p> <p>44. 민간 대북방송이라도 북한의 주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p> <p>45. 민간 대북방송과 KBS 사회교육방송은 각자 역할이 다르다</p>
<p>남북 커뮤니케이션</p>	<p>46.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p> <p>47.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사회의 종교적 자유를 잘 알려야 한다.</p> <p>48.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삐라 살포는 자제해야 한다.</p> <p>49.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은 아주 중요하다.</p> <p>50. 북한 내부에서 일고 있는 한류 바람을 촉진해야 한다.</p> <p>51. 북한의 장마당 도입 등 사회 변화를 알려야 한다.</p> <p>52. 독일 통일과정에서 서독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p> <p>53. 남북한 간 비방 방송을 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p> <p>54. 남북한 간 언론인의 교류를 통한 언론의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p> <p>55. 남북한 방송은 문화적 이질감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p> <p>56.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한 방송 교류가 필요하다.</p> <p>57. 기존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화한다.</p> <p>58. 기존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통일의 이념과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p> <p>59. 기존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남북한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p> <p>60. 기존 '남북의 창' 등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남북한 간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p>

Perception Type of the South Korean Propaganda Broadcasts Experts about The Role of Broadcast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Soojin Cho

Doctoral Program,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Chahyun Le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evaluate perception of “the role of broadcasting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mong South Korean propaganda broadcasting experts. This research used Q-methodology for in-depth evaluation of the experts’ perception towards propaganda broadcasts.

Total sixteen experts who work at the propaganda broadcasting company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as well as conduct related researches were selected as P-samples. This research listed sixty Q statements covering issues such as Perception of Unification, General Propaganda Broadcasts, Private Propaganda Broadcasts,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raditional way of Q-analysis, it drew two types of perception; Type 1: North Korean Liberal Broadcasts, Type2: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roadcasts. For in-depth analysis, positive and negative statements were analyzed based on its tendency. As a result, positive statements tend to follow ‘the Role of Unification Broadcasts’ and negative statements followed ‘the regulation of Private Broadcasts’ When further researches were conducted on positive statements based on its axis of tendencies, Type 1 and Type 2 were categorized as follows; the Role of Unification Broadcasts- North Korean Liberal Broadcasts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roadcasts. On the other hand, when negative statements were analyzed based on its tendencies, the result of Type 1 and Type 2 were as follows; the Improvement of Private Broadcasts- Redeeming the Private Propaganda Broadcasts and Criticizing Private Propaganda Broadcasts. Regardless such differences, experts do agree on the idea which emphasize the role of broadcast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also they share the same thought on the need to improve the private propaganda broadcasts. This research expected to contribute to society by making differences in analyzing

propaganda broadcasting experts' perception in an objective and positive way compare to other existing researches. Therefore, it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consider when producing propaganda broadcasts.

KEYWORDS Private Propaganda Broadcasts, Unification Broadcasts, Expert, Q-Methodology, Perception